

朴·文 “한 표라도 더” 서울·부산서 총력전

박빙 판세 속 마지막 유세 바람몰이

18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양당도 오차범위 내 박빙 판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의 유세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고 보고 당력을 집중해 득표활동을 벌였다. 또 박 후보 측은 “승리를 굳혔다”, 문 후보 측은 “대역전이 시작됐다”고 각각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대대적인 세(勢)몰이 경쟁을 벌였다. 우선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 결의를 다지는 한편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박 후보(부산→서울)와 문 후보(서울→부산)의 동선은 정반대이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마지막 ‘바람몰이’를 시도해 양측의 세 대결은 정점에 달했다. 박 후보는 오후 부산역 광장 합동 유세에서 “이제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실패한 참여정부로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대통령

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하러다가 오히려 배를 좌초시켜 버릴 것이고 경험이 많은 선장은 파도를 뚫고 들어가 그 배를 구한다”며 “저 박근혜,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저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해야 할 이유다”며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국민 여러분께 저의 남은 정치인생 모두를 바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역 유세에 이어 대전 노은역을 거쳐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국민대통합 유세로 ‘22일 선거열전’의 대미를 장식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유세에서 “내일이 투표일인데 승리가 예상되시나. 이제 이겼다 그렇게 대선

승리를 선언해도 되겠다”라면서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일자리, 한반도 평화, 새 정치의 승리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이 불법선거에 가담하고 정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이자 새누리당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선 기간 갈등과 분열을 제가 다 안고 가겠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수위 때부터 앞으로 5년의 국정방향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대통합내각을 구성할 때도 야당과 협의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함께하겠다. 여야 정 정책협의회도 상설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서울 유세에 이어 KTX를 타고 천안·대전·동대구역에서 ‘풍당풍당 유세’를 벌인 뒤 저녁 부산역 광장 유세로 선거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투표합시다” 민주통합당 광주시선대위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촛불을 든 채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투표율 70%가 당락 가른다

세대별 투표율과 서울·PK 표심이 승패 좌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대 진보’의 총력대결 구도에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0~30대 투표율이 70% 선에 근접한다면 문 후보에게, 반대로 6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 PK 지역의 민심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쏠릴지도 관심사다.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몰린 수도권 표심은 선거 당일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의 우위는 여론조사마다 박 후보 또는 문 후보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판세를 진단하기가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초 접전인 상황이다. 역대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

던 총권력의 표심도 안갯속이다.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박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해 두 자릿 수 지지율 격차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문 후보가 격차를 조금씩 줄이는 양상이다. PK 민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정찰전이 치열하다. 두 후보 진영이 벌이는 네거티브 공방전도 초접전 판세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 측이 제기한 국정원 여직원 비방 댓글 의혹은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는 것도 주목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세대별 투표율이 후보 간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대 진보’의 총력대결 구도에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0~30대 투표율이 70% 선에 근접한다면 문 후보에게, 반대로 6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 PK 지역의 민심이 최종적으로



박 “승리 굳혔다” 文 “대역전 확신”

여야 서로 승리 주장하며 공방전
흘러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희비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가 초반빙 판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승리를 주장하며 공방전을 펼쳤다. 하지만 양 측은 승리를 확인할 수 없는 초반빙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가운데 내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박 후보 측은 초반 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승리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자체 판세 분석을 내세웠다. 이날 권영진 전략조정장장은 “야당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막판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어 박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환 대변인도 “판세에 큰 변

화가 없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지만 지난 며칠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이라며 “분명한 것은 박 후보의 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에서 ‘판세가 엮어졌다. 골든크로스를 통과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고 있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판세가 엮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주말을 지나면서 대역전극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가 막판 지지율을 넓혀가면서 전체적인 판세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문 캠프의 위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비록 오차 범위가기 때문에 결국 개표를 해봐야 하는 초반빙”이라면서 “하지만 추세가 상승세여서 이 같은 추세가 선거일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역전승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우 단장은 이어 “결국 투표율이 승리를 좌우할 것”이라며 “투표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불리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70%가 넘어야 이

상승세가 실제 우세로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선 막판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둘 흘러나오면서 각 선거 캠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6~17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측이 대부분 오차범위 안에서 초반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결국 대선 당일의 투표율이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일지 이승헌 총장이 제시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

‘열’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민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신선이란 무엇인가? 신은 창조의 주체다. 국민이 신인 이유는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창조하고 책임지는 주체가기 때문이다. 열이 깨어나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다면 대한민국은 인류 평화를 창조하는 중심국이자, 지도국으로서 정신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대의이자, 섭리이자, 운명이라고 나는 믿는다. 개인도 국가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신’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여 개인과 나라와 인류의 가치를 한없이 높이고 가꾸자!”

- 본문 중에서 -

한국인의 혼을 흔들며 깨웠던 《한국인에게 고함》의 다이제스트판

국민이 신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홍익대통령의 자적

—일지 이승헌 지음—

한국인 최초
美 4대 일간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USA투데이) (LA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희망의 신간!

일지 이승헌 지음 | 176쪽 | 값 9,500원

www.hanmunhwa.com 02-2016-3500

한문화